

지역분류	아시아 / 일본
보도일/기관명	2017. 3. 10.(금)/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IoT 국제 경쟁력 지표” 발표
출처(UR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tsushin02_02000106.html

【개요】

○ 총무성은 일본의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정 지표로서 “ICT 국제 경쟁력 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oT 국제 경쟁력 지표”를 새롭게 발표한다고 밝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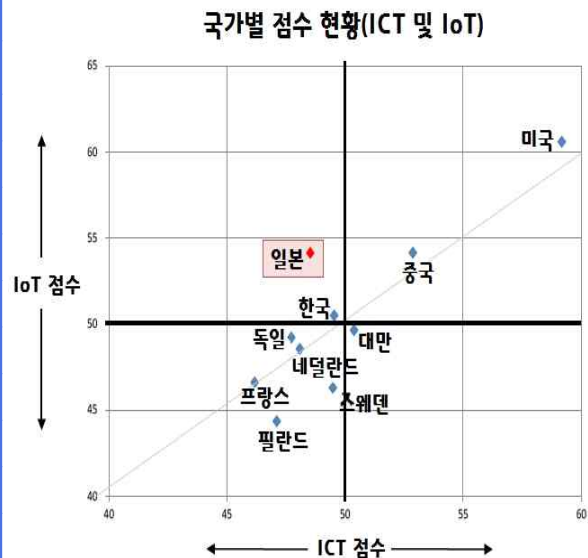
○ 개요

- 총무성은 지금까지 “ICT 국제 경쟁력 지표”의 ICT 관련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일본의 시장 점유율 및 수출액 점유율 통해 일본의 국제 경쟁력의 변화를 측정해 왔음
- 최근 모든 물건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IoT 국제 경쟁력 지표”를 발표하게 되었음
- 일본, 미국, 독일, 한국,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필란드, 대만 등 10개국의 IoT 분야를 분석하였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 개발 지수” 결과를 참고함

○ 결과

- 10개국의 종합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순으로 나타남

순위	국가	합산 점수	ICT 시장		IoT 시장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위	미국	60	1위	59	1위	61
2위	중국	54	2위	53	2위	54
3위	일본	51	6위	49	3위	54
4위	한국	50	4위	50	4위	51
5위	대만	50	3위	50	5위	50
6위	독일	48	8위	48	6위	49
7위	네덜란드	48	7위	48	7위	49
8위	스웨덴	48	5위	49	8위	46
9위	프랑스	46	10위	46	9위	47
10위	필란드	46	9위	47	10위	44



- 서비스 제품의 경쟁력은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일본은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시티’, ‘건강 관리’ 각 분야에서 25%를 웃도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목차로 이동